

“추석 곧 오는데”... 방역당국 초기장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속출... 감염 확산 우려 팽배
추석 연휴기간 귀성객·관광객 등 20만명 내도 전망

추석을 앞두고 도내에서 좀처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 제주도 방역당국이 초기장 상태에 돌입했다. 더욱이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53번 확진자가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제주시 삼양해수사우나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53번 확진자 A씨는 도 방역당국의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삼양해수사우나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1시3분부터 2시5분까지 머물렀던 시간대에 삼양해수사우나 이용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삼양해수사우나의 경우 A씨가 방문한 지 14일이 지났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당초 1차 역학조사에서 A씨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직원 1명과 지난 4일 A씨의

자택 근처에서 접촉한 동네주민 1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A씨의 접촉자는 총 2명으로 파악됐다. 접촉자 2명은 격리조치 됐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 받았다.

특히 최근 도내서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추석 연휴 기간 2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 등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

생수칙 준수 철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적어도 19만8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5일 동안 하루 평균 4만여 명이 입도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있다면 지역 의원을 우선 방문하기보다는 상비약 복용 후 보건

소를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상비약을 복용, 하루 정도 결과를 지켜보거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3일 제주 산방산탄산온천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낚은 목사부부(제주 29·33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방역당국은 목사부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기자



“가을이네”... 조랑말과 관광객 16일 제주시 제주마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랑말을 바라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 위기... 내년 예산 과감히 투입해야” 도의회 387회 임시회 개최... 좌남수 의장 ‘확장재정’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제주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고 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좌 의장은 “기간산업까지 초도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이어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또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사과가 있었

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사과이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도민들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정부,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원기자

올해산 노지감귤 원활히 처리될까

도, 생산전망·유통계획 발표
지난해보다 감절 이상 수출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원활한 유통을 위한 처리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 제주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계획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제주도의 ‘2020년산 노지감귤 생산전망 및 유통계획’에 따르면 최근 2차 관측조사 결과 예측된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52만 8000t 중 상품용으로 29만6000t, 가

공용 8만1000t, 기타(택배 도내소비 등) 15만1000t이 출하될 계획이다.

이 중 상품용은 도의 29만t, 수출 4000t, 군납 2000t 출하가 목표다.

다만 최근 3년간 수출량이 2000t 내외에 그치는 가운데 올해 수출 목표량 4000t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노지감귤 수출 처리량은 2018년(2017년산)의 경우 3000t 계획 대비 1715t, 2019년(2018년산) 3500t 계획 대비 1893t, 2020년(2019년산)은 4000t 계획 대비 2486t에 그치고 있다.

도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국 750t, 러시아 940t, 캐나다 910t, 동남아 1400t을 수출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하수도 재정 건전성 강화 본격 추진 도 “타지역보다 원가 높은 원인 분석 할 것”

지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분부는 경영관리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또한 생산원가 분석 등 세부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경영관리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16.0%에서 2019년 19.9%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48.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40.2%의 효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익 측면에서는 2019년 제주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약 105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익구조의 경우 타 하수도 직영기업에 비해 지원금 의존도가 높고 반대로 요금 수익 의존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리량 대비 자산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이자비용)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무상태는 BTL사업(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및 기존 차입금의 상황으로 부채 규모는 감소한 반면, 하수도 시설투자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5.3% 증가했다. 경영성과에 있어 요금 현실화율이 낮고, 시설투자에 따른 자본비용이 늘어 손실액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상하수도분부는 향후 주요 투자사업 계획 및 재무 전망, 그리고 경영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 현대화사업, 하수도관망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타 지역에 비해 원가가 높은 원인을 분석해 원가 절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태원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의 밝은 미래,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
장
중
심

...

적
극
행
정

...

공
감
소
통